1
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?

3
별 걸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거야!!

2
그러는 넌
뭘 믿고 그렇게 검어 니시무라!!

아 아

4
머리의 아픔도 버린 것 아니었어?

5
뭐?..!!

..!

..!!

웃..웨 이렇게 공격이?

6

7
아..아니 안 돼
두 사람이 싸우면
환가 근방이 날 것 같아!!

아아아앙!

8
싸..싸우지 마!!

9
싸..싸우진 안 돼..
싸우면..큰일이 날거야!!
싸우..

10
네 외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?

11
이 마녀가 날 시궁기로도 힐 것 같아서 그래?

!?

12
함부로 나와 있지 말라고 했잖아!

..!!

움찔!

13
순에 의지 않게 들어가 있으려고 했잖아!!

14
말을 하면 ..!!

퍽 퍽

15
들으면 알아!!

..!!?

16
뭐하는 것이야?
어린 애 장난

17
관둬!! 와룡이 하지 말라고!

18
제지에 기면 에드 시크 왕수 있다더니..

...

19
설마 이른 하는 공아 고마엔의 마음을 알고 있을 줄이야

20
여기는 정말는 애들을 중보고 보살피는 곳 아니었어? 어?

21
장난 의 하지 마 남의 가게로 멀쩡은 부순 벌하기 주제에..!!

콘다고 200만 사은!!

22
자금 내가 걱정해야 할 건 난 뭔신에 아니라, 누사신 내 가게야

23
당신 정말 구제불능이군

콜링
CALLING

반영

24
미치에서 현상금의 걸린다는 거 어린 고것 알고는 있겠지?
그것도 머니가 필이야

항상로 너등에 손대지 않는게 좋아

25
아아 어른하시겠어?
매를 봐서 잡는 거라고..!!

26
한 가지 더!
아까의 소동으로 에미 경비원들이 살짝이고 있을 거야

!!

사신 끌어버아
너만 손해든 스리아

28

27
끄으으으윽!!!
제기랄..!!

Jololok!

29
골치 아픈 건 뉘 질세여에!
알았어 알았다고!!

30
사..사!
사은 할 거 아니 사은!
그것 200만 사은
내가 더러워서 !!

31
이제 송
일이 용하겠군

32
200만 사은이면 하게 돈? 선다고?

33
해일! 나 내기 선다고 했어?
서 사은 줄 대하하하!!
어..아니 너말은 주..콘다고!

콘다고 200만 사은!!

34

35
오오?

36
그러면 200만 시 은은 않을 너무하지 않아?
상식적으로

37
태디 말해두지만, 한번도 맘이 쓸 생각은 없어

38
혀지만 돌려줄 의향다면 어느 정도 생각은 해주지

39
이 녀석한테 관심이 있는 오빠인데, 모두 해서 250만 시중정도면 어때?

40
보다시피, 몸더 대문에 올 수 있는 태는 없지 않지만..

41
몸대 때문에 보기 흉하지만, 몸더 대문에 물건도 못 쥐지만 몸대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 몸더 대문에 몸더 대문에

42
흣

43
아름 시고에다며 공복한 표정을 갖더니 흣. 대네는 역시 대네군

44
아세들에 최했은 정말 실다가도 오르려니까..

45
이런 애를 태하다 될 줄 생각이나? 실험할 건가? 개들로 만들 건가?

46
무, 무슨 소릴 하는 거야? 내가 뭘든 같은 줄 알아?

47
여기서 구해내려는 거라고!! 당신 같은 사람 손에서 ..!!

48
호오!

49
그렇다고 자유를 주려는 건 아니잖아?

50
보..보살펴 주려는 거라고!! 어린애니까!! 연약하니까!! 걱정되니까!! 무..무서운 세상이니까아아아아!!!!

51
흣. 뭐 주인 마음이니까. 하항하지 마어될 바는 아니네

52
아니라니까!!!

53
어쩐든 돈든 신뢰이어

54
공.. 나른 오하는 것 같아 기분이 영 좋진 않네

55
좋건 말고 나면 정의 마일일

56
기디려.. 금당 코장해 올 테니까

57
잠깐!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!

58
흣

59
또 뭐가 문제야?

60
사과 받아줬어!

61
미녀에 대해 할부로 매들어 던 것

62
내가 미녀라곤 아니라 그건 중요한 거 아니라 어쩐든 클레했으니까

63
꼭 사과를 받아야.

64
사과드리죠 실례가 많았습니다 '마법소녀'님

65
뭐, 뭐야 그 태도돼 변하는

66
감사문의 기분이지

67
정확 로 중능은 언제 단을이 될지 모르니까

68
왔소리 누가 단을이 된다는 거야?

69
아~어디보자 다들에는 어떤 애들을

70
하앙!!

71
끄으응

72
내가 재균 할 하는 거지.

73
사람을 돈을 주고 시다니. 경서 장년이.

74
뭐해? 인사 안하고? 네 주인이야

75
주 주인?

76
히익!

77
옛!

78
아아~~ 뭐하는 거야?! 니가 감히 그럼 내가 니른 사람일걸아!!

79
난 널 구해주려는 거래고!

80

81
아..

82
최급 이게 뭐하는 짓이야?

83
그..그게

84
여기서 나가고 싶었잖아,
넬 당신이?

85
넬도 안 드는
이두분 넘으론
다시 들어가고 싶어?

86
아, 아니

87
그런 일은 절 죽이고 난 것
아니야!
새 주인한테 다시 붙고 싶어?

88
가면,
먹는 것 가리지 말고,
남기지 말고

89
더러운 아이는
누구나 싫어하니까
돌아나온 계일 먼저 댕기질 하고
잘 씻고

90
응.

91
..두 번 다시 여기로
오면 안 돼

...

92
뭐야?
왜 대답이 없어?
...

...

93
내가 싫은 남은
이미 정해진거야

94
저긴 저 멘탁가 넬
배 함께 돌아 하는 무법인데
계속 이런 식이면..

스윽

..!?

타닥

...!!

95
내가 가면

96
내가 가면
원장 없어도 행복히 지는 거지?

..그래 97

98
응
나 그럼 갈게

99
환변반..

환변단이라도..
원장정아를
기쁘게 해주고 싶었어

100

101
뭐, 뭐야 여기?

102
여기가 어떤게
통아가는 거야?

타닥

..!?

103
그만 해!!
먼제까지 참절거리고
있을 거야!?

104
뭐해!
네 주인이 기다리잖아!

105
그러니 반동이라도 되면
기안 안돌 줄 알아!!

툰!

툰!

106
어 좋았어

가..갈게..107

..!?

타닥

안녕..108

...!!

109
안녕..원장얌마..

110
당신의 이야들은
언제나 당신의 몫..

111
당신만의 사랑

112
당신의 이야들은..

휘릭

...!!

우앙 앙!!

...

113
오직 당신만을 위한
사랑..

안 녕

114

115
안녕...!!

FALLEN WITCH

끼삭